

## 나주시 33억 들인 백호 임제 문학관

## 건물만 준공된채 수개월 방치

운영주체·방안 없어 내년 상반기 개관 힘들 듯

나주시가 조선 중기시대 시인이자 문신인 백호(白湖) 임제(1549~1587) 선생의 문학관을 건립했으나 운영주체는 물론 운영 방안 등이 없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1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임제 선생의 고향인 다시면 회진리에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백호문학관을 착공, 사업 추진 4년여만인 지난 7월 준공했다.

대지 3500여㎡에 전체면적 870㎡로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현재 문학관은 건물만 준공된 채 내부 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등은 텅 비어 있다.

시가 건물과 내부시설을 따로따로 추진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문학관 운영방안, 재원확보, 프로그램 개발, 유지방안 등도 없는 상태다.

시는 직영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내부시설 마무리 등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관이 어려울 전망이다.

유물과 유적도 문집과 시비, 기념

비 등 유물(6점)과 논문집 74점만 확보한 상태로 개관을 해도 풀숙개관이 불가피하다.

운영주체를 놓고도 임씨 문중과 자체, 지역 예술인 등의 생각이 달라 2~3차례 간담회 등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제 선생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내부시설 등을 마무리해 빠른 시일 안에 개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15kg들이 대봉감 5만~6만원 거래  
영암군 금정면 단감농장에서 주민들이 주문받은 대봉감을 배송하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15kg들이 최상품 대봉감 한 상자 가격은 5만~6만원이다.  
<영암군 제공>

## 영암지역 거점고 육성 실효성 논란

도교육청, 영암여고 배제한 '일반고 2+특성화고 1' 체제

“단순 학교 통·폐합일 뿐…선택과 집중 효과 없다” 우려

최근 영암지역에서 전남도교육청의 거점고 육성방향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농·어촌 군 단위별로 2~3개 고교를 선정, 거점고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영암의 경우 일반계고는 영암고와 ‘삼호고+낭주고’, 특성화고는 ‘구림 공고+영암 전자과학고’ 등으로 각각 통·폐합하는 ‘일반계고 2+특성화고 1’ 체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점고 육성정책에 따르면

사립(私立)인 영암여고는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에서는 본래의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학교의 통·폐합이라는 효과만 있을 뿐 명문고 육성은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유출 방지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암교육지원청 교육미래위원회

황용주(전 영암여·중고 교장) 위원장은 “영암지역에 ‘일반계고 2+특성화고 1’ 체제의 거점고 육성정책이라면 인구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폐쇄해온 기준 학교 통·폐합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군민들이 열망하는 명문고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등의 취지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민 A(51·영암읍)씨도 “거점고 육성정책과 관련해 여전히 개지지 않고 있는 영암고와 영암여고의 통·폐합까지를 감안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 웰빙 새싹채소로 건강 쟁기세요 나주 별들이농원 개소

웰빙 식품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채소가 나주에서 생산된다.

나주시는 지난 8일 공산면 백사리에 위치한 별드리 새싹농원에서 임성훈 시장, 김옥기 도의원, 공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와 권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별드리 새싹농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주)대농바이오와 MOU 체결



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에 이어 새싹채소를 이용한 요리경연대회가 열렸으며, 새싹 비빔밥을 함께 나눠 먹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공산면 신곡리·백사리·중포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8

40여일만에 50% 실적  
지원센터 공정률도 20%

강진군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유치업체는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제조업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체,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체, 환경정화 및 부원업체, 운송장비 제조업체 등이다.

운영현 강진군 산단팀장은 “강진 환경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생산증대 효과 4000억원, 부가가치 효과 1000억원, 30여개 업체 입주로 1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ou@

있다. 화순 적벽(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은 조선 중종 때 신재 죄산 우 선생이 동복에서 귀향살이하면서 이곳의 뛰어난 풍광을 보고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이를 따와 붙였다. 이후 많은 풍류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 아름다움을 친미했으며 4월 초과일을 전후해 3일 간 낙화(落火)놀이와 적벽시회 등 ‘적벽연’(宴)을 열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영암, 2020년 서남권 중심도시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확정… 신산업 거점 도약

영암군은 오는 2020년 ‘서남권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1년 4개월의 연구끝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안을 만든 후 주민 간담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이 계획은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비롯해 ▲지역여건·전망을 고려한 중장기적 사업발굴 ▲공동번영·상생을 통한 지역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 ▲지역민 수요 중심의 프로젝트 발굴 ▲국·도비 및 민간투자 유인이 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등이다.

또 ▲활기찬 영암 ▲정기어린 영암

▲운기나는 영암 ▲생기 넘치는 영암 등 영암의 상징인 ‘기’(氣)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부문별 계획으로 제시했다.

특히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및 조선산업 고도화,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농·공·상 융합형 음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등은 미래 영암이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수정계획은 총사업비 1조3370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자주재원은 1조73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 “구직 희망자 모두 오세요”

24일 나주 취업박람회

‘2011년 희망나주 취업박람회’가 오는 24일 나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나주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향후 입주에 정인 30여 기업체가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에게 선택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나주시 위귀계 기업지원실장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해 왔다”며 “이번 취업박람회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에 남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행을 교육시켰다.

또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주관의 ‘지역브랜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지역맞춤형 부문에서 ‘천연염색 산업’을 기반으로 한 내수주얼컬러(Natural Color) 전략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전국 246 자자체중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나주시 위귀계 기업지원실장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해 왔다”며 “이번 취업박람회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민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남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훈 시장은 입기중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해 취업박람회 등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이창동사무소 부지내에 ‘나주 직업훈련원’을 개원해 그동안 280

/중부취재본부=최승렬·정철현기자

## 강진 환경산단 토지보상 순조

40여일만에 50% 실적

지원센터 공정률도 20%

강진군은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시설 부지에 대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유치업체는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제조업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체,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체, 환경정화 및 부원업체, 운송장비 제조업체 등이다.

운영현 강진군 산단팀장은 “강진 환경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생산증대 효과 4000억원, 부가가치 효과 1000억원, 30여개 업체 입주로 10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ou@

## 고향잃은 수몰민 위로 화순적벽축제 내일 개막

‘제 30회 화순 적벽축제’가 오는 12일 화순군 이서면 산학리 일원에서 열린다.

(사)한토문화유적보존회(회장 장동식) 주최로 열리는 적벽축제는 지난 2001년 동복호 확장공사로 인해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망향대제’로 시작됐다. 또 2006년부터는 이서면 영신마을 뒤편 천제단 자리에 서 ‘개천대제’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있다. 화순 적벽(전라남도 기념물 제60호)은 조선 중종 때 신재 죄산 우 선생이 동복에서 귀향살이하면서 이곳의 뛰어난 풍광을 보고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이를 따와 붙였다.

그 이후 많은 풍류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 아름다움을 친미했으며 4월 초과일을 전후해 3일 간 낙화(落火)놀이와 적벽시회 등 ‘적벽연’(宴)을 열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동명공인중개사

【상가 매매】

- 광주상가건물 5800㎡매매가 58억원(용지34억원)
- 직영운영시 연간수익 1억원 이상, 성업중, 주차시설完비
- 광주최고 학습성급 상가매매 29억원(월1700만원 용지10㎡)유명브랜드 전문취급점포
- 광주중심가 상가대지 253㎡건물996㎡매매가 15억7천만원(보증금1억, 월550만원 성업증권 특수상권)
- 광산구 청사지구 상가대지 482㎡, 건물711㎡매매가 14억5천만원(보증금3억, 월800만원 성업증권 우동인구 많음)

【임대 매매】

- 수복면 대방리 2510㎡주택 2동(7기와, 슬리브 198㎡)매매가 3기(상가)인산·평통산·남평·잔디밭조성, 주변경관최상
- 수복면 대방리 전원부지 대지 572㎡매매가 8200만원

【대지 매매】

- 광산구 1층면적 231㎡ 2층주택 136㎡매매가 5천만원(용지 2억) 고매출 소유자에게 직영중

【신축 모델 매매 및 임대】

- 신죽동 1동 대지 1117㎡건물1454㎡객실23개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 신죽동 1동 대지 605㎡건물1360㎡객실32개 매매가 28억 월용지12억
- 매입후 임대시 보증금5억, 월2200만원 가능함.

【고시원 매매】

- 용봉동 대지 310㎡건물618㎡(65실)매매가 7억9천만원(용지 3억, 월수입1200만원)

【토지매매】

- 광산구 수원지구 자연녹지지역 신설로8차선(임照亮로)부근

- 대지 15,000㎡ 매매가 39억원(불루센터 등 적합)

- 전 5,140㎡ 매매가 15억6천만원(불루센터 등 적합)

【목록팅 매매】

- 대지 453㎡건물 2011㎡매매가 19억(용지10억)

- 기대상가수입 보증금 3천만원 월700만원 성업증

- 대지 443㎡건물 1237㎡매매가 19억5천만원(용지9억5천만원)

- 기대상가수입 보증금3천만원 월1500만원 성업증